

B-4. 결손부 치료에 있어 자가치아 이식술을 이용한 임상증례

최희준¹, 김병욱¹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¹

자가치아 이식술은 1956년 Miller의 보고 이후로 많은 임상증례가 보고되어 오고 있다.

자가치아 이식술의 적응증과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유리한 지, 이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고려사항으로는 이식 치아에서는 이식치아의 치질량, 치근막량, 이식치아의 크기, 치근형태, 치태, 치석 침착 등 치주학적 문제의 술전 해결 등이 있고, 수용측에서는 수용측 치조골의 폭과 길이, 부착 치은 폭 등이 있으며, 악정의 폭과 깊이, 하악관, 상악동과의 관계, 악정의 형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합병증으로는 표면흡수, 염증성 흡수, 치환성 흡수등의 흡수와 부착의 부분적 실패, 치조골에 관한 문제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심한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 등으로 예후가 불량한 치아를 발거한 후 제 3대구치를 발거하여 바로 apicoectomy를 시행하여 자가치아이식술을 하였고, 임시치관 상태로 3-6개월 정도 관찰한 후 최종 보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임상적 증상은 양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